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4월 5일**

전도를 맡은 자 딛1:1-4

오늘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부활은 인간의 최종 소망이요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사실이라는 증명으로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너희도 나의 보혈 안에서 이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이란 것이 없으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사단의 머리를 깬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안에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대신 당하신 주님의 권세가 들어 있습니다. 그가 창에 찔리므로 우리의 허물 문제가 해결되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과 치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허물과 죄가 영원히 없고 그의 주신 평화는 영원하여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며 나음과 치유에 대한 약속도 완전하여 우리는 그 날 완전하게 치유될 것입니다. 그 나음과 치유는 영원히 존속될 것이며 이것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대신 당하심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살아 있는 부활절입니다.

1. 전도를 맡은 자

1) 디도서는 자신의 제자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디도는 현장의 목사로서 디모데 못지 않은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서문으로서 중요한 바울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전도를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3절의 내가 하나님의 전도를 맡은 자라는 표현은 그의 사명과 자신이 누구인가를 고백한 단어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부활시키는 행위이며 부활을 약속 받게 하는 작업입니다. 세상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전도를 부탁 받은 자가 자신이라는 고백입니다.
2) 고전4: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골2:2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함이니 … 자신과 또 함께 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3) 전도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저주에 빠져 있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복음 외에는 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위에는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4) 이 지역에도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들이 매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양로병원에 대한 보고를 늘 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 둔 그 분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얼굴과 표정과 눈 빛 그리고 말 등에 누구 봐도 영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만큼 모습이 바뀝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쳐다보기도 싫어합니다.
5) 내 경험에 의하면 미국 양로 병원은 더 심각합니다. 미국 사단이 그 만큼 더 세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 분들을 보고 거기에 가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주위의 친구 신자분들에게 한 번 물어보면 금방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냥 가서 복음을 말하기만 하면 전체가 그냥 살아납니다. 당연히 우리 전도자들이 지

속으로 가고 있는 그 곳도 살아나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전도하려고 하는 자들도 나오고, 직원들도 이제는 아주 우호적이고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뜻이고 이것을 내게 맡겨 주셨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6) 마약 정신병 각종 중독 이런 저런 영적인 버릇, 감옥 전도 등 복음 아니면 안 될 절대적인 분야가 많습니다. 이미 있는 시스템을 타고 활용도 하고 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 …… 우리를 기다리는 곳이요 하나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7) 이렇게 중대한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려면 내가 내 복음에 먼저 답이 나야 합니다. 나 자신의 현장과 나의 가문의 영역에서 이 복음이면 된다는 개인적인 답이 나야 합니다. 이 답이 확실하면 어디를 가나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복음을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8) 먼저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정리하면 상당한 이해가 당연히 오고 언약으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로 답 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답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길이 예배를 통하여 받는 말씀입니다

9)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성취를 통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 잡고 있고 예배 때에 받는 말씀도 없고 그것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도 없는 예배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의 신앙에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한 주간 내 인생의 축을 유지할 받은 말씀이 없다면 영적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근본 언약으로 승리하는 것 위에 이 주간 구체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인한 증거가 더해져야 합니다

10) 내 안에 있는 언약 그리스도는 근본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이 언약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만 한 것이 아니고 나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증거와 응답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1) 이 말씀에 대하여 아주 예민한 사람이 있고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위하여 정말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열정은 있지만 차분하게 사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아직 안 된 사람도 있고 이해는 되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12)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받는 말씀 만큼 내 안에 그리고 내 인생 안에 그리스도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 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십니다. 부활절을 맞아 나의 말씀이 부활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받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내 인생이 살아 움직일 것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고 세상도 살아날 것입니다. 요셉의 말씀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전부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를 맡은 자들이고 영적 전쟁에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